



## Teen STAR 일곱 번째 만남

알성달

어느 날 신문에서 눈길을 끄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탤런트인 무카이 아키 부부가 대리출산으로 얻은 쌍둥이 자녀에 대해 일본 대법원이 “설령 자신의 난자라도 대리모를 통해 얻은 자녀와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모 간에는 모자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판결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기사였어요. 무카이씨는 암으로 자궁을 적출한 뒤 남편과의 수정란을 이용, 미국 여성에게 대리출산을 의뢰해 자녀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모델 출신인 자신의 여자 친구를 두고 어떤 대리모에게서 아기를 얻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 대리출산을 한 무카이 아키 부부

‘대리출산’은 정자와 난자를 체외 시험관에서 수정시킨 다음, 이 수정란을 제3의 여성(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임신하게 하여 출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대리출산은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부부에게는 마지막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생명의 탄생과 인간 존엄성’, ‘사람의 신체와 모성(母性)의 상품화’ 등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리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불임부부와 독신이 늘어나면서 대리출산을 희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또 어려운 살림 때문에 대리모를 지원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불임부부들에게 대리출산의 천국으로 불리기도 했다는군요. 이런 대리출산과 관련하여 이번 일곱 번째 만남에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 〈베이비 M〉 사건



▲ 〈베이비 M〉 사건 기사

이미 1987년 미국에서는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아이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둘러싼 법적 소송이 있었습니다.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낳아주기로 한 대리모가 출산 뒤 마음을 바꿔 아이를 자신이 기르겠다고 나서면서 발생한 법적 소송으로 법원은 대리출산을 의뢰한(정자를 제공한) 부부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지요. 당시 〈베이비 M〉으로 불렸던 이 사건은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아이에 대한 양육권 문제를 다룬 최초의 사례로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베이비 M〉 사건을 살펴보면, 1984년 생화학자인 윌리엄 스텐과 소아과 의사이며 만성질환인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으로 임신할 수 없었던 부인 엘리자베스 스텐은 뉴욕에 있는 한 불임연구소를 찾아 자신들의 정자와 난세포를 추출하여 자궁 외에서 인공수정시킨 다음 다른

여자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대리출산을 의뢰하였습니다.

대리모가 되기로 한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는 이미 두 아이의 엄마였는데, 그의 남편인 리처드 화이트헤드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대리모 광고에 응하게 되었고, 그의 남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메리는 '태어날 아기와 부모 자식의 관계를 맺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 1만 달러를 받기로 하고 대리출산 계약을 맺은 후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러를 받고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계약한 여성의 자궁에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리라 조금도 의심치 않은 한 생명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 6개월이 지나면서 대리모인 메리가 뱃속의 아기는 자신의 아기라고, 또 스티븐 부부는 자신들의 아기라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리모인 메리는 1986년 3월 27일에 딸을 출산한 뒤 처음의 계약 조건과는 달리 1만 달러를 포기하고 아이를 자신이 기르겠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부부가 이를 거절하자 메리는 '이 아기는 내 아기다. 나를 감동시켰다. 내가 아기를 데리고 있어야 한다. 아기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함께 죽겠다.'라면서 아기를 데리고 잠적하면서까지 자신의 아이로 키우고, 지키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한 아이의 생명을 두고 상업적인 계약을 한 이 일은 아이의 친부를 주장하는 윌리엄 스티븐에 의해 대리모 계약의 합법성과 아기의 양육권에 대한 소송으로 뉴저지 가정법원에 제기되었고, 법원에서는 판결이 날 때까지 두 가정에서 각각 부르는 고유한 이름 대신 <베이비 M>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2년여간의 법적 소송을 거쳤는데 뉴저지 대법원은 대리모 계약은 불법이지만, 스티븐 부부의 가정생활이 더 안정적이고 아기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스티븐 부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베이비 M>은 메리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리가 그렇게까지 아이를 키우고, 지키고 싶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어머니와 아기, 생명의 유대감



Gustav Klimt, Mother & Child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때 서로를 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남녀 간에는 서로 사랑한다는 최고의 표현으로 성적인 결합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결합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머니와 수태된 아기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여성마다 임신의 이유와 환경은 모두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여성이 수태하게 되면 그 순간 개개인의 상황과는 별개로 여성의 몸 안에서는 머리카락에서 발끝까지 한 생명을 지키고 길러 내기 위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몸과 마음에서 말입니다. 충분한 사랑, 환형과 포용 안에서 새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여성의 몸은 스스로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에는 뱃속의 새 생명을 향한 아주 강한 유대감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유대감으로 메리는 아기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한 것은 아닐까요?

<베이비 M>에 대한 법원 판결은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하나의 선례를 남겼지만,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베이비 M>의 입장에서 과연 누구를 부모라고 해야 할까요. 낳아 준 메리, 아니면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스티븐 부부? 과연 그 아이에게는 무엇이 최대의 행복이었을까?

만삭이 되어오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는 메리의 남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자기의 동생인 줄만 알았던 아기를 다른 집에 보내야 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두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 치료용 맞춤 아기(savior sibling)

2009년 9월에 개봉한 'my sister's keeper'라는 영화는 과거를 회상하는 나레이션과 함께 시작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기는 태어나지만 나는 언니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 나레이션만 보더라도 이 영화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시험관 수정을 통해 아픈 자녀와 조직이 일치하는 배아를 선택적으로 착상시켜 낳은 아기. 치료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만들어진 아기. 그래서 ‘구세주 형제’, ‘스페어 베이비’, ‘디자이너 베이비’라는 이름을 가진 ‘치료용 맞춤 아기’를 다룬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불치병에 걸린 둘째 딸(케이트)을 위해 부모는 딸과 유전자가 일치하는 동생을 인공수정으로 낳게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진 셋째 아이(안나)는 다섯 살이 되던 해부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니의 치료를 위해 자신의 몸에서 많은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백혈구, 줄기세포, 골수, 그리고 신장이식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11살이 된 안나는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 엄마 ‘사라’와 아빠를 고소하면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네이버 네티즌 평점 9.01 / 12세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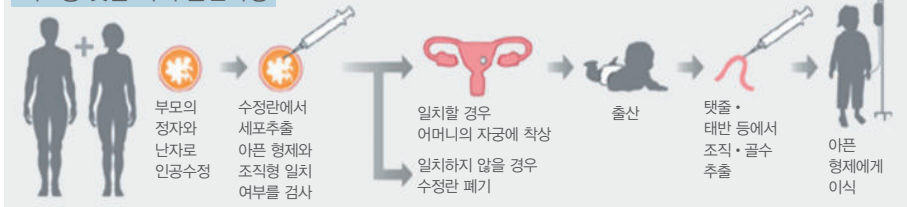


나 ‘안나’는 언니 ‘케이트’의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태어난 맞춤형 아기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대혈, 백혈구, 줄기세포, 골수, 내 몸의 모든 것을 언니에게 주었고 그런 내 역할에 대해 한 번도 도전한 적 없었다. 하지만 이제 아니다. 난 내 몸의 권리를 찾기 위해 엄마 ‘사라’와 아빠를 고소하기로 결심했다.(맞춤 아기 안나)

두 살배기 딸 케이트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유전 공학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건 어떤 이들에게는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부부에게 선택의 여지란 없었다. 그렇게 태어난 안나가 우릴 고소했다. 최고 승소율을 자랑하는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난 11살 된 딸을 상대로 또 다른 딸 케이트를 살리기 위한 재판을 해야 한다.(엄마 사라)

나는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내가 숨통 건 나 때문에 가족들도 죽어간다는 것이다. 내가 아프기 시작한 이후로 엄마는 변호사 일도 그만두고 나를 살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나는 아빠의 첫사랑을, 오빠 제시의 엄마를 빼앗았다. 그리고 동생 안나의 몸을 빼앗았다. 이제는 가족들을 위해 나 나름의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언니 케이트)

### 치료용 맞춤 아기 출산과정



만일 내가 영화 속 부모인 '사라'라면 과연 내 아이를 위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언니를 위한 치료용 맞춤 아기로 태어난 '안나'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치료용 맞춤 아기는 더 이상 영화 속만의 이야기는 아니예요. 이미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맞춤형 아기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난 2002년 영국의 휘태커 부부가 희귀 빈혈증을 앓던 아들의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여자 동생을 출산하고 골수 이식수술을 했던 경우가 있었지요. 그 당시에는 영국 정부가 맞춤 아기 출산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부는 미국에서 출산과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2008년 영국 하원은 '치료용 맞춤 아기' 출산을 세계 최초로 합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용 맞춤 아기'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우려와 논란 속에서도 생명공학이라는 틀 안에서 연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리출산과 치료용 맞춤 아기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한 때 <베이비 M>으로 불렸던 아이도,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진 아이도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겠다고 서약한 부모의 일치된 사랑 안에서 선물로써 받아들여진 존재였기를 희망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불치병에 걸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생명체를 인공적으로 만들고, 필요한 조직을 추출해 활용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치료용 맞춤 아기'가 "내 몸에 대해선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한 인간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닌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치료용 맞춤 아기'도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는 않을까요? 사람의 신체나 모성(母性)이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일곱 번째 만남을 마치면서 2008년 제7회 EBS 국제다큐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상영된 <구글 베이비 (Google Baby)>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소개합니다. 이 영화는 현대 공학의 최첨단 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한 아기 생산 방식과 유통 사업을 조명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서 기업이 도론은 대리모를 통해 원하는 아기를



▲ 국제적 산업이 된 대리모 출산의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구글 베이비(Google Baby)>(2009)의 한 장면. '고객'에게 주문받은 아이를 임신한 가난한 인도의 대리모 여성들이 즐지어 누워 있다.

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주문 사업을 하면서 "이제 당신은 신용카드만 있으면 당신의 성별에 관계없이 아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주문형 아기 공장, 돈만 지급하면 쇼핑몰에서 쇼핑하듯 아이를 살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과 상업주의를 이유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인간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현실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Cum** 김혜정 베로니카(한국틴스타 교사)